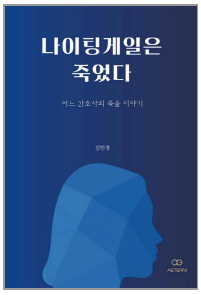
AETERNI

간호학과 독서 수업 자료 · 2026년 11월 첫판



나이팅게일은 죽었다

어느 간호사의 죽음 이야기

지은이	김민경
출판사	에테르니 (2019년 개정판. 2018년에 따로 나온『유명』과『나이팅게일은 죽었다』를 한 권으로 합침)
쪽수·정가	224쪽 · 15,000원 · ISBN 979-11-964431-4-6
주제어	임종, 간호윤리, 연명의료, 가족, 교대근무, 간호사의 애도
교과 연계	간호학개론: 간호의 본질, 간호 전문직 기본간호학, 호스피스·완화간호: 임종 간호, 사후 처치 간호윤리: 자율성 존중, 진실 말하기, 연명의료 결정 간호관리학: 업무량, 인계, 근무환경

책 소개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일한 간호사가 병동에서 겪은 일을 적은 에세이입니다. 1부 「유명」에는 신규 간호사 시절 처음 맡은 환자의 임종부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입원한 환자, 치료를 그만두고 싶다는 환자,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는 가족까지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부 「나이팅게일은 죽었다」에는 나이트 근무의 하루와 인계, 끼니를 거르는 근무 환경, 환자의 죽음 뒤에 홀로 우는 간호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개념으로 배우는 임종 간호와 간호윤리의 문제가 환자 한 사람, 근무 한 번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장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출간 이전의 경험을 적은 글이어서, 지금의 임상 지침과 다른 부분은 수업에서 함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나오는 환자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6쪽). 이 자료의 쪽수는 개정판 7쇄(2023년 5월)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활동 목표

1. 저자가 처음 겪은 임종 장면에서 간호사가 한 일과 느낀 감정을 정리하고, 간호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2. 임종이 가까운 환자와 가족의 불편을 원문에서 찾아 안위 간호 중재와 재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3. 치료 중단 요청과 가족의 고지 거부 장면에서 환자의 결정권과 가족의 요청이 부딪히는 지점을 설명할 수 있다.
4. 간호사의 애도와 소진을 개인의 문제와 병동 조직의 문제로 나누어 토론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쓰는 방법

이 자료는 4차시(차시당 50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업 상황에 따라 한두 차시만 골라 쓰셔도 됩니다. 읽을 부분은 수업 전에 과제로 내 주세요(1차시 약 12쪽, 2차시 8쪽, 3차시 약 21쪽, 4차시 약 21쪽). 2차시는 책의 여덟 쪽(88~95쪽)만 읽어도 진행할 수 있어서, 한 차시만 써 보실 때 권합니다.

학생용 활동지는 복사해 쓰실 수 있도록 차시마다 한 쪽으로 만들었고, 예시 답안과 지도할 때 유의할 점은 뒤쪽 교수자용에 모았습니다. 함께 보내 드리는 워드 파일(docx)을 한글이나 워드에서 열어 수업에 맞게 고쳐 쓰셔도 됩니다.

차시별 수업 계획

차시	단계	읽을 부분	활동	활동지
1	읽기 전·중	9~13쪽 115~121쪽	간호사가 처음 만난 죽음 · 내가 생각하는 간호사의 하루 쓰기 · 저자의 첫 임종 경험 정리하기 · 무뎌지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 '간호란 무엇인가'에 답하기	①
2	읽기 중	88~95쪽	임종 곁에서 하는 간호 · 환자와 가족의 불편 찾기 · 안위 간호 중재와 재평가 방법 쓰기 · 가족에게 상태를 알리는 말 역할극	②
3	읽기 후	29~35쪽 66~74쪽 139~143쪽	환자의 뜻과 가족의 뜻 · 치료 중단 요청에 먼저 확인할 것 · 저자의 대답을 나누어 읽기 · 고지 거부 상황 토론 · 서명되지 않은 서류와 연명의료 결정	③
4	읽기 후	135~147쪽 159~161쪽 171~175쪽	간호사도 애도한다 · 바쁜 병동에서 마음을 쓰기 어려운 이유 · 애도에 필요한 것 · 오래 일하기 위한 조건 토론, 성찰 글쓰기	④

2차시 진행 예시 (50분)

단계	시간	활동
도입	5분	학습목표를 안내하고, 임종과 사후 처치 장면이 있으며 역할극에서 관찰자 역할을 고를 수 있다고 알린다.
전개	10분	교재로 임종기 신체 변화, 안위 간호, 가족 돌봄의 개념을 확인한다.
	15분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활동지 ② 1번을 채운다.
	10분	역할극. 간호사 1명, 가족 1명, 관찰자 2명으로 나누고 3분 연습과 2분 피드백을 역할을 바꿔 두 번 한다.
정리	10분	불편 요인과 중재를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 질문(활동지 ② 5번)에 답하게 한다.

프로그램 학습성과 연계 (예시)

차시	연계할 수 있는 학습성과	학과 학습성과 번호
1	간호 전문직의 가치와 정체성	
2	임상추론에 근거한 간호과정 적용, 치료적 의사소통	
3	법과 윤리에 따른 간호 수행	
4	보건의료팀과의 협력, 개인과 전문직 발전	

학과마다 학습성과의 문구와 번호가 달라 성격만 적었습니다. 오른쪽 칸에 학과의 번호를 적어 쓰시면 됩니다.

활동지 ① 간호사가 처음 만난 죽음

1차시 · 읽을 부분 9~13쪽, 115~121쪽 학번 _____ 이름 _____

1.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간호사의 하루를 세 문장으로 써 봅시다.

2. 저자가 처음으로 담당 환자의 임종을 겪은 날(9~12쪽)을 장면별로 정리해 봅시다.

장면	저자가 한 일	저자가 느낀 감정
환자가 임종한 직후		
퇴근길		
기숙사에 돌아와서		

3. 시간이 흐른 뒤 저자는 "나의 감정과 생각 또한 죽음 앞에 점점 무뎌져 갔다"(12쪽)고 씁니다. 감정이 무뎌진 것은 저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고, 무엇을 잃게 했을까요? 12~13쪽에서 근거를 찾아 써 봅시다.

도움이 된 점	잃은 것

4. 저자는 간호사가 되기 전 교수님께 "간호란 무엇일까요?"라고 물었습니다(119쪽). 교수님의 답을 읽고, 지금의 나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써 봅시다.

활동지 ② 임종 곁에서 하는 간호

2차시 · 읽을 부분 88~95쪽 학번 _____ 이름 _____

1. 88~91쪽에서 환자와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찾아 표를 채워 봅시다. 쪽수를 꼭 적으세요.

쪽	관찰한 것	저자가 한 간호	영향과 다시 확인할 방법

2. 1번에서 찾은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 간호진단을 붙여 봅시다.

3. 역할극 준비. 아래 상황에서 간호사가 가족에게 할 말을 써 봅시다.

상황	91쪽. 며칠 사이 숨 쉬는 간격이 짧아지고 숨이 가빠졌다 멎기를 되풀이한다. 맥박이 크게 오르내리고 혈압이 떨어지며 알람이 쉬지 않고 울린다. 아내와 가족이 곁에 있다. 아내가 묻는다. “이제 얼마나 남은 건가요?”(이 질문은 역할극을 위해 덧붙임)

4. 관찰자 기록

관찰 항목	잘함	보완	의견
정보가 정확하고 단정하지 않음			
가족의 감정에 반응함			
가족이 이해했는지 확인함			

5. 마무리 질문. 오늘 수업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을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활동지 ③ 환자의 뜻과 가족의 뜻

3차시 · 읽을 부분 29~35쪽, 66~74쪽, 139~143쪽 학번 _____ 이름 _____

1. 고열로 입원을 되풀이하던 환자가 묻습니다. “제가 치료를 포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31쪽) 이 말을 들은 간호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세 가지 써 봅시다.

2. 32~33쪽에서 저자가 환자와 딸에게 한 대답을 다시 읽어 봅시다. 환자의 결정을 존중한 말과 치료를 계속하도록 설득한 말을 나누어 옮겨 적고, 설득한 말이 환자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아래 칸에 써 봅시다.

존중한 말	설득한 말

3. 66~68쪽에서 가족은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의료진에게 부탁합니다. 뒤늦게 상태를 들은 환자는 진통제를 거절합니다. 내가 담당 간호사라면 가족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써 봅시다.

4. 조별 토론. “가족이 원하면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찬성하는 근거	반대하는 근거	우리 조의 결론

5. 139~143쪽의 환자는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남편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143쪽). 지금의 연명의료결정 제도에서라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었을지 써 봅시다.

활동지 ④ 간호사도 애도한다

4차시 · 읽을 부분 135~147쪽, 159~161쪽, 171~175쪽 학번 _____ 이름 _____

1. 몇 년 만에 다시 입원한 환자의 콜벨이 울릴 때 저자는 "'또…'라며 한숨부터 나왔다"(140쪽)고 씁니다. 저자가 이 환자에게 마음을 쓰기 어려웠던 이유를 139~140쪽에서 찾아 나누어 적어 봅시다.

저자 개인의 이유	병동 상황의 이유

2. 저자는 "누구도 간호사인 내게 임종한 환자를 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147쪽)고 씁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 스스로	
동료	
병동과 병원	

3. 159~161쪽에서 저자는 후배의 인계에 빠진 부분을 질문으로 채우면서도 "감정을 배제하고 말하는 것"(161쪽)에 신경 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써 봅시다.

4. 성찰 쓰기. 저자는 첫해를 돌아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닌 '힘'을 배웠고"(175쪽)라고 쓰면서도, "아직도 출근하기 전날 밤이면 늘 병원 꿈을 꾸곤 한다"(174쪽)고 적습니다. 간호사로 오래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그저 버티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써 봅시다.

교수자용: 지도 유의점과 예시 답안

1차시 간호사가 처음 만난 죽음

- 1번은 책을 펴기 전에 쓰게 해야 저자의 경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4번의 교수님 답(119쪽)은 여러 관점 가운데 하나로 소개합니다. 학생 답이 봉사와 희생에만 머물면 관찰과 판단 같은 전문성도 함께 묻습니다.
- 저자는 “간호학은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맏이로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했던 사정과 대형병원 취업이 쉽다는 담임선생님의 조언을 들고(116쪽),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선택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성숙해졌다고 씁니다(118쪽). 간호학과를 고른 이유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1학년과 이야기 나누기 좋은 대목입니다.

2번 예시 답안

장면	저자가 한 일	저자가 느낀 감정
임종 직후(10쪽)	굳어 가는 환자의 몸을 만지고 새 환자복으로 갈아입힘	큰 충격, 원인을 알 수 없는 슬픔, 허무함
퇴근길(11쪽)	싸락눈 속에서 한강을 따라 뜀	살아 있음을 느끼고 싶은 충동
기숙사(12쪽)	피곤했지만 잠들지 못함	죽음의 잔상 때문에 무서움

3번 예시 답안. 도움이 된 점은 임종이 가까운 가족에게 그 사실을 담담하게 전하고, 환자가 편안히 임종하도록 할 일을 하고, 사후 처치와 행정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12~13쪽). 잃은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환자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12쪽). 저자는 이 과정에서 ‘죽음이란 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다고 덧붙입니다(13쪽). 거리 두기와 공감을 함께 가져가는 문제는 4차시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2차시 임종 곁에서 하는 간호

- 저자는 몸 아래 깔린 소변 줄과 모니터 선 같은 것들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것은 아니라서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것들”(90쪽)이라고 씁니다. 이런 것을 살피는 일이 피부 손상 예방, 증상 완화, 존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해 주세요. 체위 변경과 기구 정리는 환자 상태와 안전을 확인한 뒤 하고, 가족의 참여는 권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 저자는 가족에게 “아직 들으실 순 있으니까”(91쪽) 마지막 말을 하라고 권하고, 98쪽에서도 “아직 청각은 살아있으니”라고 말하지만, 98쪽에서는 실제로 듣고 반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임종기에도 청각 반응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연구(Blundon 외, 2020)가 있으나 말의 뜻을 이해한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역할극에서는 “반응이 없더라도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편안히 말씀해 주세요.”처럼 가능성으로 말하도록 지도합니다.
- 3번 역할극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몫입니다. 간호사는 관찰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족이 원하면 의사와의 면담을 연결한다는 범위를 짚어 주세요.
- 2번 간호진단의 예로는 피부 통합성 장애 위험, 비애, 임종 불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진단명은 학과에서 쓰는 교재의 판본에 맞춰 주세요. 92~93쪽의 사후 처치는 소속 기관의 지침과 비교하는 심화 활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1번 예시 답안 (앞의 세 칸은 해당 쪽 내용, 마지막 칸은 수업을 위한 제안)

쪽	관찰한 것	저자가 한 간호	영향과 다시 확인할 방법(제안)
89	모니터 알람이 울릴 때마다 가족이 긴장함	수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전함(91쪽)	가족의 불안. 가족이 이해한 내용을 되물어 확인
90	산소마스크가 조여 볼과 귀 뒤에 빨간 자국	고정 끈을 거즈로 감쌈	압박에 의한 피부 손상. 피부와 마스크 위치 재사정
90~91	고열 상태로 몇 시간 같은 자세	보호자와 함께 옆으로 눕히고, 아내가 등을 닦음	피부 손상 위험, 불편. 체위 변경 뒤 호흡과 피부 확인

90	소변 줄과 모니터 선이 몸 아래 깔림	얽힌 선을 정리함	압박과 기구 기능 문제. 기구 작동과 피부 확인
91~92	호흡 간격 변화, 맥박과 혈압 변동	가족에게 마지막 말을 권함	작별의 기회. 가족의 반응과 요구 확인

3차시 환자의 뜻과 가족의 뜻

- 31쪽 환자의 말은 반복 입원과 주사의 부담에서 나온 것으로, 곧바로 연명의료 중단 상황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저자의 대답도 학생들이 따져 볼 대상입니다. 대답 뒤에 환자가 미소를 보였다는 것(33쪽)이 그 대답이 적절했다는 증거가 되는지도 함께 물어봅니다.
- 진통제를 거절한 이유를 책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세요"라며 짐작해 전합니다(68쪽). 가족의 해석과 환자 본인의 이유는 다를 수 있으니,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 4번은 진단 고지의 문제여서 연명의료 중단 절차보다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으로 다룹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연명의료결정법 제3조 제2항,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12조·제13조). 5번은 뒤쪽의 '참고: 연명의료결정 제도'와 함께 보시기를 권합니다.

1번 예시 답안. 무엇이 가장 힘든지(통증, 반복되는 주사, 잦은 입원), 어떤 치료를 원하지 않는지, 증상 조절과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가족이나 의료진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지.

2번 예시 답안. 존중한 말은 "치료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환자분께 있는 게 맞아요."(32쪽)이고, 설득한 말은 "누군가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도 많거든요."(32쪽), "지금의 소중함을 느껴보면 어떨까요."(33쪽)입니다. 설득한 말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치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죄책감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3번 예시 답안. 가족의 걱정을 먼저 인정하고, 환자가 자기 상태를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며, 전달 방법은 의료팀과 의논하겠다고 말합니다.

4번에서 나올 만한 근거. 찬성 쪽에서는 환자가 알고 싶지 않을 권리, 충격을 걱정하는 가족의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반대 쪽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그리고 고지가 늦어지면 연명의료계획서처럼 환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결정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조마다 결론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5번 예시 답안. 환자는 더 쓸 항암제가 없는 상태였으므로(139쪽),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그것이 환자의 뜻으로 인정됩니다(제17조). 다만 이행하려면 먼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제16조). 또 지금 제도에서 가족은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평소 일관되게 밝힌 뜻을 진술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합니다(가족이 1명이면 그 1명의 진술). 남편이 전화로 결정한 장면과 이 점을 비교해 봅니다. 원문에는 사건 날짜가 없어 당시 처리가 적법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4차시 간호사도 애도한다

- 1번에서 저자가 마음을 쓰기 어려웠던 데에는 개인의 피로와 함께 "하필 위독했던 중환자가 많은 시기"였고 "밥 먹을 틈을 내기도 힘들 만큼" 바빴던 병동 상황(140쪽)이 있습니다. 근무 조건의 문제로도 함께 토론해 주세요.
- 173쪽의 "버텨내는 것까지가 재능이다"라는 문장만 남지 않도록, 159~161쪽의 인계 장면과 176~184쪽의 관찰과 돌봄 장면을 함께 읽히기를 권합니다.
- 토론이나 글쓰기에서 개인의 사별 경험을 밝히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1번 예시 답안. 저자 개인의 이유는 바쁜 업무가 몇 날 며칠 이어져 지쳐 있었고, '손이 많이 가는 환자'가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병동 상황의 이유는 위독한 중환자가 많은 시기였고 밥 먹을 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140쪽).

2번 예시 답안(책에 나오지 않는 제안). 나 스스로는 감정을 글로 적거나 동료에게 말하기, 동료는 임종 뒤 짧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병동과 병원은 임종 뒤 업무 조정과 상담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번 예시 답안. 감정 섞인 비난을 받으면 후배는 다음에 모르는 것을 묻거나 빠진 것을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빠진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면 그 부담은 환자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과제로 이어 갈 때

서평이나 성찰문을 과제로 내실 때 쓸 수 있는 채점 기준입니다.

항목(배점)	상	중	하
원문 근거(25)	쪽수가 정확하고 장면의 맥락을 살림	쪽수는 맞으나 맥락 설명이 부족함	쪽수가 없거나 틀림
개념 적용(30)	수업 개념으로 장면의 쟁점을 설명함	개념을 언급하나 연결이 약함	개념 없이 감상만 씀
간호 행위와 의사소통(30)	실제로 할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방향은 맞으나 추상적임	간호 행위가 없음
성찰(15)	간호사의 역할과 자신의 준비를 구체적으로 연결함	일반적인 소감	성찰이 없음

성찰 점수는 개인의 상실 경험을 밝혔는지와 상관없이 매깁니다. 대체 장면을 고른 학생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수업 전에 알아 두실 장면

45쪽에 자살과 관련된 언행이, 92~93쪽에 사후 처치가, 142~143쪽에 심폐소생술과 갑작스러운 사망이 나옵니다. 미리 알려 주시고, 원하는 학생은 대체 장면(159~161쪽, 176~184쪽)을 읽게 할 수 있습니다. 역할극에서는 관찰자 역할을 고를 수 있게 해 주세요.

참고: 연명의료결정 제도 (2026년 11월 16일 확인)

근거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책의 장면은 2018년 출간 이전의 경험이지만 원문에 사건 날짜가 없어 제도 시행 전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임종과정 판단	원칙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합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6조).
환자의 뜻 확인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합니다. 이런 문서가 없고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평소 환자의 뜻에 대한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가족이 1명이면 그 1명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합니다(제17조, 제18조).
가족의 대리 결정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연명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4).
중단 뒤의 돌봄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제19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본문(2026년 11월 12일 시행본, 제16~19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명의료결정제도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말기환자까지 넓히는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니 수업 전에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책을 구하는 방법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두 차시만 쓰신다면 학생 전원 구입보다 도서관 지정도서 비치를 권합니다. 교수님 검토용 책이 필요하시거나, 학생용 발췌본 배포나 학습관리시스템 게시가 필요하시면 범위를 알려 주세요. 출판사에서 확인해 답을 드립니다. 문의는 aeterni.h@gmail.com(도서출판 에테르니)으로 보내 주세요.

참고 자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9호, 2026년 11월 12일 시행) 제3조, 제16~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한국간호사 윤리지침」(2023년 2월 개정) 제12조, 제13조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202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인용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
- Blundon, E. G., Gallagher, R. E., & Ward, L. M. (2020). Electrophysiological evidence of preserved hearing at the end of life. Scientific Reports, 10, 10336.

자료 정보와 이용 안내

자료명	『나이팅게일은 죽었다』 간호학과 독서 수업 자료 (2026년 11월 첫판)
만든 곳	도서출판 에테르니
원작	김민경, 『나이팅게일은 죽었다』, 에테르니, 2019 (ⓒ 김민경, 2019)
이용 안내	수업과 학생 지도 같은 비영리 교육 목적이라면 출처를 밝히고 이 자료를 자유롭게 복사하고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활동지에 실린 짧은 본문 인용은 수업 안에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책 본문을 더 길게 옮겨 나누어 주시거나 학습관리시스템에 올리실 때, 영리 목적으로 쓰실 때는 출판사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학생이 인용할 때	김민경(2019). 나이팅게일은 죽었다(개정판). 에테르니.
의견 보내기	더 나은 자료가 되도록 고칠 점을 알려 주시면 다음 판에 반영하겠습니다.
출판사	도서출판 에테르니(AETERNI) · 출판사 등록 제2018-000042호 전화 070-4204-6447 · 이메일 aeterni.h@gmail.com · www.aeterni.co.kr